

# 일제 강점기의 교차문학 연구\*

- 유아사 가쓰에의 『カソナニ(간난이)』를 통한 교차문학 연구 -

어 연 경\*\*

本稿は湯浅克衛の作品『カンナニ』を対象に交差文学の意義を導きだしたいと思い分析したものである。論者はまずこの作品の構造に注目し、作品を分析した。この作品は10章で構成されている。しかし、その時間の流れは線上の時間の流れではなく、構成された時間である。1章の時間は5章の後に來るべき時間でありながら、小説の冒頭に位置する。つまり、この小説は書き手により再構成された過去回想である。過去回想を再構成しながら語るということは事実を展開することが目的ではないだろう。それは語る視点から自己を導きだす過程であり、取捨選択し時間の前後を入れ替えながら現在の位置から最適の意味を付与することであろう。本稿では 作品『カンナニ』の作者(書き手)に注目し、1章と10章がもつ意味と「水原」という場所がもつ意味をカンナニと龍二という人物を通じて考察した。

キーワード : 交差文学、カンナニ、竜二の観点、ヨニイの観点、作者(書き手)  
(교차문학, 간난이, 류지의 시점, 용이의 시점, 작가)

## 1. 일제 강점기 교차문학 작품들의 재해석

먼저 일본강점기시대의 일본어로 쓰인 한국 작가의 문학은 한국에서 연구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글로벌 시대로 바뀌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세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읽어나간다. 문학도 마찬가지다. 번역된 작품으로 세계의 작품을 읽기도 하지만, 원서로 빠르게 읽기도 한다. 그 읽는 행위는 역사나 사상보다 읽는 이의 기호에 의해 선택된다.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5C-A00676)

\*\* 국민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그리고 문학의 흐름 또한 공간과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굳이 그 나라의 역사나 시대를 알지 못해도 통할 수 있는 작품들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도서시장의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일본작품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을 상대로 대학생들이 즐겨 있는 작품을 조사한 결과도 일본 작품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즉, 문학을 접하는 데 있어 그 작품의 성격과 기호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반감과 문학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이다. '일본어'로 쓰였다고 일본문학에 무턱대고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문학과 역사를 따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일본 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작품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좁혀서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는 한국인이 한국어로 쓴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쓴 작품도 있고, 외국인이 한국의 정서를 담은 작품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한국문학'의 범위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인지 강구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문학'의 범위를 넓혀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다시 시대를 거슬러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로밖에 문학 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작가와 그 작품의 범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친일파로서 창씨개명을 한 후 일본인으로 활동한 작가들도 있지만, 단지 작품을 쓰고 싶어 일본어로 쓴 작가들도 있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로 썼기 때문에 '친일적인 문학'으로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들의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그렸는지는 무엇을 쓰지 않았는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쓰지 않았는지, 또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일제 강점기시대에 일본어로 쓰인 작품들을 비판만 하고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많은 작품들을 그저 가리고 덮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즉,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묻힌 우리들의 문학작품들을 다시 한 번 꺼내 재해석해야 한다.

반면, 일제 강점기시대에 일본어로 한국의 정서를 그린 일본 작가의 작품도 있다. 이 작품들도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쓰였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정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에는 문학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어 세상에 소개되지 못한 작품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학을 발굴하고 연구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망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가 쓴 『간난이(カソナニ)』를 대상으로 교차문학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유아사 가쓰에의 『カソナニ(간난이)』를 통해본 교차문학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1910~1982)는 일본 가가와현(香川縣) 출생으로 1916년 순사에 합격한 부친을 따라 경기도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1922년 수원공립심상소학교 졸업하고, 1927년 경성중학교를 졸업했으며, 1928년 일본 와세다대학 입학했으나 중퇴하게 된다. 단편집 『간난이(カソナニ)』는 1935년 4월 『문학평론(文學評論)』에 발표된 그의 처녀작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선행연구는 아래에 인용된 유아사의 언급이 작품평가와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간난이』는 내가 24살 때의 11월에 쓴 작품이다. 이미 독자가 알고 있듯이 작품은 한일합방부터 大正 3년 3월1일에 일어난 그 만세사건 전후까지 계속된 조선의 분위기를 그렸다. (중략) 나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보통과(尋常科) 2학년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새겨진 인심과 정경은 너무나도 강렬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수원은 3.1만세가 가장 격렬했던 곳이다. (중략)  
나는 독립을 희망하는 조선인들의 마음을 기리며 가슴이 뛰었고  
울면서 처녀작에 이 문제를 다루었다. (중략) 조선의 사계  
절을 배경으로 풍속을 삽입하여 검열에도 꽤 신경을 썼지만 될  
대로 되라는 기본으로 단숨에 써 내려갔다.<sup>1)</sup>

가장 먼저 『간난이』를 논한 재일교포 박춘일<sup>2)</sup>은 위의 작가의 변과 함께 『간난이』가 비교적 많은 조선인에게 읽힌 이유를 “작가가 말하듯 독립을 바라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몹시 감동하여 울면서 쓴 한결같은 자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순수한 자세로 쓰인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원희의 「유아사 가츠에(湯淺克衛)와 조선」<sup>3)</sup>에서도 위의 작가의 변을 인용하여 “유아사 가츠에는 초기 작품에서 조선과 조선인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수탈 아래서 조선인들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었는가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간난이』에서 3.1독립운동을 소재로 하여 총독부가 군인들을 출동시켜 자행했던 무차별적인 총기 발사와 교회 방화 등을 묘사함으로써 일제의 잔혹함과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여, 유아사의 초기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인문은 「한국 이주 일본인문학에 나타난 한국의식」<sup>4)</sup>에서 작품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 작품 속에서 나타난 한국의식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유아사 자신의 중간자적 의식을 지적하였다. 권승혁의 「내선일체지향소설로 본 『간난이』」<sup>5)</sup>는 선행연구자들이 말한 일본에 의한 조선 식민지정책 자체를 반대한 비판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상호 지배관계를 현실적으로 기정사실화한 내선일

1) 池田浩士(1995) 『湯淺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p.520.

2) 朴春日(1985) 『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像』 未来社、p.121.

3) 이원희(2003) 「유아사 가츠에(湯淺克衛)와 조선」 『일본학』22집, 동국대학교출판부, p.231.

4) 정인문(2004) 「한국 이주 일본인문학에 나타난 한국의식」 『일본어문학』25집, 일본어문학회, pp.372-377.

5) 권승혁(2006) 「내선일체지향소설로 본 『간난이(カンナニ)』」 『일본어문학』32집, 일본어문학회, p.193.

체관에 기초한 시혜주의의 발로로 볼 수 있다”고 논하고, 작품 『간난이』는 저항소설이 아닌 내선일체지향소설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작가의 고백에 치우쳐 해석되거나 당시 역사적 사실에 비중을 둔 해석으로 작품의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논자는 좀 더 세밀한 작품분석을 통해 ‘류지(龍二)’가 추구한 세상과 작가(書き手)가 『カソナニ(간난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이야기하지 못하고 덮은 것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1 『간난이(カソナニ)』 작품분석

### 2.1.1 『간난이』의 시간적 흐름

이 작품은 1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1장부터 추모식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1장은 류지가 간난이와 함께 조선의 설날 풍경을 보며 느끼는 풋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2장은 부모를 따라 조선에 오게 된 계기와 그 과정 그리고 ‘간난이’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류지가 회상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3장의 시간은 2장에 이은 시간으로 연결되어 4장부터 10장까지 이른다. 10장은 수원의 3.1만세운동 이후 간난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류지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찾으러 나서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즉, 이 소설은 작가(書き手)에 의해 재구성된 과거회상 소설이다. 시간적 흐름을 추모식으로 잇지 않고 편집하였다면, 그것은 1장의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소설의 시작과 끝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 1장의 시간은 스토리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넣지 않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2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면 과거회상의 형식이 아닌 리얼하게 흐르는 추모식 흐름의 소설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1장의 시간을 2장 앞에 넣어 과거회상을 재구성하였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체험한 일들을 취사선택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최적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수원의 3.1만세운동을 경험한 주인공 ‘류지’와 ‘간난이’의 이야기를 왜 조선의 평화로운 설날 모습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작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말하지 않고는 소설의 결말을 도출할 수 없는 모종의 의미부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이 소설의 시간 흐름에 주목하고자 한다.

1장의 시간을 이 소설 안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5장과 6장 사이에 들어갈 시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세한 작품분석을 통해 1장의 시간이 갖는 의미와 마지막 장인 10장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자.

### 2.1.2 ‘간난이’와 ‘류지(龍二)’ 사이의 어긋남(ずれ)

류지는 아버지가 총독부에서 순사 일을 구하게 되어 일본 시코쿠(四國)지방에서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 류지의 일본에서의 생활은 가난하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조선 순사로 오게 된 것을 승진으로 생각하고 가족 모두 기뻐하였다. 그렇게 조선으로 와서 간난이를 처음 만나게 된 곳이 이근택 자작의 저택에서다.

“소학생, 이번에 온 순사의 아들인 류지구나? 좀 전에 어머니께서 소학생을 부르던데, 매우 큰 목소리로”라며 상냥한 눈으로 말했다.

“내가 소학생인 걸 우찌 알았노?”

자기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조선 여자애를 말끄러미 보면서, 류지는 사투리를 그대로 드러내며 말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자아이 쪽이 웃으면서,

“소학생은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네”라고 말하였다.

「小学生、今度来た巡查の子な、龍二ふね、さつきお母ちゃん小学生を呼んでゐた、おつきい声出して――、とやさしい眸をした

「わしが小学生云ふのなんで知つてるのぞな、

自分の国の言葉を流暢に喋るこの朝鮮の女の子をまじまじと見ながら、龍二はおくに言葉を丸出しにした。すると今度は女の

子の方が笑ひ出して、  
 「小学生は、をかしの日本語使ふのね」  
 と云ふのである。

이 장면에서 '간난이'와 '류지'의 어긋남을 볼 수 있다. 이 둘의 어긋남은 조정민, 「유아사 가쓰에 『간난이』의 정치적 알레고리 읽기」<sup>6)</sup>에서 “훈육으로 정제된 간난이의 일본어를 기준으로 할 때, 류지의 언어(방언)는 ‘이상한 일본어’로 전락하고 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마도 류지는 조선으로 오기 전까지 자신의 언어가 ‘이상한 일본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조선이라는 장소 그리고 조선인이라는 타자와 조우했을 때, 그는 비로소 언어적 혼종지대가 존재하고 나아가 자신의 언어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식민지하에서 일본어를 배운 간난이의 입장에서 류지(龍二)는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인인 것이다. 둘은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데 문제는 없으나 둘의 일본어에서는 어긋남(ずれ)이 둘의 첫 만남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류지를 간난이는 “있잖아, 일본인은 모두 싫어, 순사는 더 싫어, 그래도 너는 너무 좋아”라고 말한다.

간난이는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 일본어를 구사하는 모든 일본인과 순사를 싫어하나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류지는 매우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류지의 존재를 좀 더 고찰하도록 하자.

다음 장면은 일본아이들이 조선 여자아이를 심하게 못살게 구는 장면을 목격한 류지가 그 조선 여자아이가 간난이라고 생각하고 달

6) 조정민(2012) 「유아사 가쓰에 『간난이』의 정치적 알레고리 읽기」『한일민족문제연구』 22호, 한일민족문제학회, pp.150-151.

이 논문에서는 간난이의 유창한 일본어에 대해 지적하였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1910년대 후반이고, 실제로 당시의 보통학교 재학생이 약 8만5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난이의 일본어 실력은 사실감이 부족한 묘사인지도 모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간난이의 일본어 구사가 제국의 식민지 언어교육의 결과물이라는 점이고, 그것은 류지가 생득적으로 익힌 언어와 뚜렷하게 구별된다”라고 논하였다.

려가 확인하였더니 간난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일본 남자아이들에게 경멸감을 느끼며 학교에서 쓴 글짓기이다.

조선은 잘 다스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집 옆에 사는 간난이는 일본인이 너무 싫다고 말합니다. 간난이와 사이 좋게 지내면 지낼수록 간난이의 슬픈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간난이가 좋습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는 누구도 없습니다. 나는 간난이와 같이 좋은 친구를 못살게 굴거나 어제의 여자아이처럼 불쌍한 아이를 못살게 구는 일본인이 싫습니다. 그런 일본인은 조선에서 내쫓는 것이 좋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조선인과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 조선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 생각과 똑같습니다.

朝鮮はうまく治つてゐると聞いて来たら、さうでないのがわかりました。僕の家隣のカンナニは日本人が大嫌ひだと伝ひます。カンナニと仲善くすればするほど、カンナニの悲しい氣持がわかります。僕はカンナニが好きです。大好きです。あんなにいい友達是谁もありません。僕はカンナニのやうないい友達をいぢめたり、昨日の女の子のやうに可哀さうな子をいぢめたりする日本人を憎みます。そんな日本人は朝鮮から追出したらいいのです。校長先生は朝鮮人とは仲善くしなければいかん、朝鮮人と結婚する人は偉い人だとおつしやいました。僕もとてもさうだと思ひます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류지는 간난이를 좋아하며 “간난이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고, 조선 여자아이를 못살게 굴고 장난을 치는 “일본인을 싫어”하며, 교장선생님의 말씀처럼 “조선인과 사이 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소년이다. 그리고 간난이와 함께 조선의 독립을 바라며 간난이의 “만세”를 따라 일본어로 “만자이(万歳)”를 외치는 소년이다. 간난이에게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류지는 다른 일본인과 구별되는 존재이다. 위의 장면에서처럼 일본인들 앞에서 자신의 조선인에 대한 생각을 글짓기로 쓰고 모두의 앞에서 읽는 장면은 다른 일본인 학생과는 다른 존재로 그려진다. 다른 일본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말을 듣게 되나 류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 역시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분명한 일본인이었던 것이다. 갓짱들에게 심하게 당하는 소녀가 간난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에 그치는 류지의 모습에서는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인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류지는 그 일을 엄마인 오순에게도 하물며 간난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일본인인 소학생의 그런 무참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치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龍二はそのことを母親のおしゆんにも、ましてやカンナニにも話すことができなかつた。日本人の小学生のそんな無惨の行為を話すことは自分の恥辱になるやうな気がした]”라고 갓짱들의 행위를 “자신의 치욕”처럼 느끼고 있다. 다시 말해 류지는 간난이를 통해 조선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갓짱들의 행위를 자신의 “치욕”으로 느끼는 일본인인 것이다. 즉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류지는 간난이를 이해하지만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인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일본인과는 다른 일본인이라는 경계는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편향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간난이의 “있잖아, 일본인은 모두 싫어, 순사는 더 싫어, 그래도 너는 너무 좋아”라는 말은 류지를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경계 속에서 헤매게 만든다. 류지에게 간난이의 존재는 자신의 존재 즉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없게 만든다. 일본인이라는 경계 속에 들어가지만 간난이의 “그래도 너는 너무 좋아”라는 범위에 들어가 있는 류지의 갈등은 위에서 논한 대로 류지와 간난이의 첫 대면부터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류지와 “이상하지 않은 유창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간난이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

간난이는 류지에게 “아아, 이지메를 당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 류짱과 둘이서 언제나 놀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ああ、いちめられないところに行きたいね、龍ちゃんと二人だけで、いつも遊べるところに行きたいね]”라고 말하지만, 류지는 달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간난이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간난이에게 있어 류지는 일본인이라는 경계를 벗어난 “그래도 너무 좋은” 류지이지만, 류지는 자신의 일본인이라는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

이 그려진다. 간난이는 둘만 있을 수 있는 곳, 어떠한 방해도 없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을 희망하지만, 류지는 그런 간난이의 모습을 등지고 오히려 달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온다. 이 장면은 일본인 류지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둘 사이의 계속되는 어긋남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둘이 어긋나는 모습은 다음의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에 홍수가 난 후 강물이 불어나서 논밭에 있던 수박, 참외, 호박이 떠내려가는 것을 조선의 청년들이 필사적으로 건져 올리는 장면이다.

류지는 어쩌서 조선청년들이 참외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변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지하며 경솔하다고 생각했다. 간난이에게 물었더니 그날은 여느 때와 달리 뽀로통한 얼굴로,

“그걸 모른단 말야”라며 상대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한참 뒤가 되어서 류지도 알게 되었다.

龍二はどうして鮮童たちがマクハのために、そんなに必死になつたのかわからなかつた。あんなことをするのは無智で軽はずみだと思つた。カンナニに訊くと、その日はいつになくカンナニはむくれて、

「それがわからんの、

と、取り合はなかつた。

けれども、それはやがて、ずーつと後になつて龍二にもわかつてきた。

류지에게는 조선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맛있는 참외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강에서 참외를 건지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장면에서도 간난이와 류지 사이에는 절대 공유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맛있는 참외를 건지기 위해 눈앞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은 일본인인 류지에게는 알 수 없는 세계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간난이에게 물었을 땐 간난이조차 류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참 뒤가 되어 류지도 알게” 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 사람의 대부분은 쌀밥은 고사하고 좁쌀이나 피조차 만족하게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름에 나는 참외가 나오기 시작하면 참외를 주식으로 하여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이것을 먹었다. 참외는 럭비볼 정도의 크기의 것이 한 개에 5리나 1전에 살 수 있다. 같은 가격으로 수세미외를 조금 큰 것으로 한 척 크기의 것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조차 속은 쉽게 먹을 수 없었다. 어른이 먹고 남은 껍질을 아이들이 머리에 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조금씩 베어 씹었다. 언젠가 류지는 간난이 집에서 참외 한 조각을 대접받았다. 하지만 멍멍하고 풀맛이 날 뿐 어떤 단맛도 느낄 수 없었다. 간난이는 다른 조선의 아이들과는 달리 때로는 한 개를 통째로 먹었다. 그것을 먹을 때 간난이가 맛있어 하는 입 모양이란, “세계에서 이것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간난이뿐만이 아니었다. 참외를 샀을 때에는 사람들은 길가에서 담소를 나누며 이것 보라는 듯이 먹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이 넉넉히 생긴 사람은 친구에게 “참외 먹으러 가세”라고 권하고, 지게에 쌓아놓고 참외를 파는 길가에서 원유회를 열었다. 이때 가난한 조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을 류지는 알았다.<sup>7)</sup>

朝鮮の人たちの大部分は、米の飯などはおろか満州粟や稗さへ、満足には食べられなかつた。それで夏 時マクハが出始めると、マクワを常食にし、朝昼晩とぶつ通して食べた。マクハはラグビーのボール位の大きさのが、一つ五里か一銭で買へた。同じ値段で、へちまをやや太くした一尺もの長さのものも買ふことができた。けれども、それさへ子供たちには中身が容易に食べられなかつた。大人が食べた残り の皮を子供たちは頭にのつけて、楽しみにして待つて歩き、なぶりながら少しづつ囓つた。いつか竜二はカンナニの家で、マクハ一きれ御馳走になつた。けれども水つぼく

7) 이원희, 전계논문 p.218에서는 이 부분의 인용과 함께 “류지가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아니 처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장면인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일본의 악랄한 식민 수탈정책의 결과라는 사실의 인식까지 도달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조선 백성들의 처참한 식량사정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고 논하고 있다.

青くさいだけで何の甘さも感じられなかつた。カンナニは他の朝童たちと違つて、時には丸ごとの奴を食べてゐた。それを食べる時のカンナニのうまさうな口つきときたら、「世界中にこれよりうまいものはない」といつたふうであつた。そして、それはカンナニだけでなかつた。マクハが買へた時には人たちは路傍で談笑しながら、これ見ようがしに食つた。それで誰か金がたんまりはいつた人は、友たちを「マクハ食ひに行かう」と誘ひ、チゲに積んだマクハ屋の路傍で車座になつて園遊会を開くのである。その時だけ、朝鮮の貧しい人たちが生き甲斐を感じてゐることを龍二は知つた。

같은 조선이라는 장소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둘은 경계라는 선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둘 사이의 경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져 갔다. “있잖아, 중학교에 가는 거 싫어. 총독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싫어. 중학교에 가면 조선인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니까 [ね、中学校に行つたらいや、総督やなんか偉い奴になつたらいや、中学校に行くと朝鮮人をいぢめる役になるから]” 라는 간난이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둘의 관계는 시간의 경과와 동시에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류지는 자신이 중학교에 가는 것이 조선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을뿐더러,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간난이에게 내년엔 중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공부할 거라고 말한다. 류지는 어머니가 간난이와 만나지 말라는 말에 거역할 수도 없다. 중학교 진학은 부모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류지에게는 당연한 미래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간난이의 말은 류지에게 다시 한 번 새롭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자신의 장래를 바꾸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단지 일본인인 자신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위치가 조선인에게 어떻게 비춰지게 될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간난이에게 류지는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존재이나 역시 일본인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야기의 1장에서 간난이는 류지에게 50원에 자신을 데려가(시집) 달라고 한다. 류지는 어른이 되어서 데려가겠

다고 약속한다. 간난이는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서 류지에게 손을 내밀지만, 이 이야기는 간난이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간난이를 향한 류지의 구원은 실패로 끝난다. 간난이가 “만세”를 외치며 월슨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조선을 독립시켜 주리라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듯, 류지 또한 간난이를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말은 예고된 것처럼 소설의 1장의 류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류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 하나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던 아버지도 사주지 않았다.

“그건 조선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야”라며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뒤 정원에 있는 은행나무를 잘라 끝을 뾰족하게 해보았지만 쪼르르 두세 번 약하게 흔들리면 돌더니 쓰러져버렸다. 그것을 더욱 작은 칼로 깎아 보았더니, 연필처럼 가늘게 된 데다 손까지 베어서 피가 나고 말았다. 류지는 상처 난 집게손가락을 훑아보았다. 그랬더니 얇게 베인 피부 안에서 피가 번져 나왔다. 혀끝으로 느껴지는 씹쓰레한 맛이 웬지 쓸쓸했다.

龍二の願ひは何一つ聞いてくれぬことのない父親も買つてはくれなかつた。「そんな鮮童の遊ぶものなど」と取合はないのである。それで昨日は裏庭の杏の木を切つて先を尖らしてみたが、チョロチョロと二三回よろけながら廻つたきりでえんこしてしまつた。それをなほも小刀で削つてゐると鉛筆のやうに細くなり、おまけに指まで削つて血を出したりした。

龍二は傷した人差指をしやぶつてみた。しやぶると、薄くできた皮膚の中から血が泌み出て来た。舌先にほろ苦い味が何故か佻しい。

류지(龍二)라는 이름은 한국어로 용이라는 이름이 된다. 용이라는 이름은 조선 이름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다. 아니 그보다 간난이와 어울리는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1장에서 류지는 조선 아이들처럼 팽이를 갖고 싶어서 만들기를 시도해보지만 손에 상처만 내고 실패한다. 즉, 류지가 용이(龍二)가 될 수 없음을 앞서 준비하듯이 류지와 간난이는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어긋나게 된다. 류지라는 존재는 소설 속에서 “일본인”과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인

이라는 경계와, “조선인”과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인이라는 경계에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에서 류지와 간난이는 때로는 하나의 경계에서 “만세”와 “만자이”를 외치며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다르게 구별된 경계에서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보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둘의 어긋남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작가(書き手)의 존재를 통해 고찰하도록 하자.

## 2.2 작가(書き手)의 존재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 이야기는 작가(書き手)에 의해서 재구성된 이야기다. 작가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이 뒤엉켜 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시간의 재구성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 그대로가 아닌,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편집인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작가의 의도를 확인하도록 하자.

본자가 이 작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명의 일본인의 존재이다. “이상한 일본어”인 방언을 사용하는 류지와 표준어를 구사하는 작가(書き手)의 존재인 것이다.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조선의 언어를 일본어 가타가나로 생생하게 표기하고 있다. “お前巡査の子な”라는 부분에 루비를 사용하여 “당신, 순사 아들이구나 [タンシン, スンサ アドルナ]”라고 한국어를 가타가나로 표기하고 있다. 또 “畜生、どうだ”에는 “육시랄 놈 [ユツキイロム]”, “この野郎”에는 “이놈 [イロム]”, “犬のできそこなひめ、殺してやる”에는 “야, 이 개새끼 죽었다 [イヤーイキシキ チュゲツター]”의 루비를 사용하여 조선어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작가는 류지라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나, 그 전개방식은 류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어 위에 생생한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류지는 방언을 사용하고 있으나 작가(書き手)는 표준어인 일본어로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소설은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류지와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 작가의 존재를 확연히 구별 지으며 전개된다. 그렇다면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어와 조선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간난이가 류지에게 조선어를 배울 것을 권유하는 장면이다.

당신은 너라는 말이야. 조선어를 배워. 내가 일본어를 하는 것처럼. 응, 그러면 너와 내가 조선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면서 말할 수 있잖아. 학교 이야기와 그 외 많은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조선어와 일본어를 섞어 가면서 이야기하자.

タンシンはお前のことよ。朝鮮語おぼえなさい。わたくしが日本語話せるやうに。ね、そしたらお前と私は朝鮮語と日本語と交ぜこちやで話できるね。学校の話や、そのほか、いろんな世界中の話、たくさあーんしよう

간난이는 류지에게 위와 같이 조선어 배우기를 권유한다. 조선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사용하여 둘만의 세계를 구축하자고 한다.<sup>8)</sup> 하지만 이 이야기는 류지가 조선어를 배우기도 전에 간난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나서,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류지가 이루지 못한 간난이의 바람은 이 소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류지는 이루지 못했으나 작가(書き手)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다. 류지의 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류지와 다른 작가(書き手)의 존재 또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이 소설은 “이상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류지와 “이상하지 않은” 일본어를 구사하고 있는 작가의 존재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다.<sup>9)</sup> 그렇다면 주인공 류지와 간난이가 두 나라의 경계에서 교류

8) 조정민, 전계논문 pp.153-154에서는 조선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사용하자는 간난이의 제안을 “특정 내셔널리티에 귀속되지 않는, 혹은 특정 내셔널리티에 안착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은밀한 장소의 표상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하고, “간난이가 류지에게 조선어 학습을 권할 때부터 그녀는 이미 혼종적 혹은 탈중심적 세계에 한발 진입”했으나 간난이의 제안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논자는 간난이가 바라는 혼종적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바람을 류지는 이루지 못했으나, 그 바람을 들어주기라도 하듯 일본어와 조선어를 혼종어로 쓰고 있는 작가(書き手)의 존재를 주목하고 논을 전개해 나갔다.

9) 조정민 씨도 지적하였듯 이러한 류지의 “이상한 일본어”도 이야기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상하지 않은” 표준말을 사용하는 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논자는 여기서 류지와 작가의 거리에 주목하고 싶다. 앞부분은 류지와 거리를 둔 서술이었

하지 못한 부분을 작가는 간난이와 교류하고 있는지 다음의 장면에서 확인해 보자.

소설 속에서 간난이는 아리랑을 즐겨 부른다. 아리랑의 가사는 간난이가 부르는 대로 가타가나로 표기된다. 그리고 뒷장에 간난이가 부르는 아리랑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실었다. 이 두 아리랑을 보도록 하자.

- 1) アリラン、アリラン、アラリ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アリランコゲル、ノモカンダ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ナルーポリゴカヌンニー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シムニドモ~カツツ、バルピヨナイ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 2) アリラン、アリラン、アラリ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アリラン坂を越えて行く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田畑は自動車の道となり 논밭은 자동차길이 되고  
 娘はカルボ(女郎)に売られ行く 딸은 갈보로 팔려간다

간난이가 즐겨 부르던 아리랑은 위에 표기된 것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을 가타가나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書き手)는 이 아리랑을 “이 노래는 구슬픈 가락이 스며드는 것 같다 [その歌は哀調が滲みるやうであつた]”라고 하고 평하며, 다시 한번 일본어로 그 의미를 옮기고 있다. 하지만 간난이가 부르는 아리랑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 당시 수원에서 이렇게 개사하여 부른 조선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간난이가 부른 아리랑 가사와는 다른 의미의 가사를 붙였다. 위에서 간난이가 류지에게 원한 조선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사용하자는 바람을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작가였지만, 그 모습은 역시 간난이와 일치할 수는 없는 일본인인 것이다. 간난이의 아리랑에서 스며드는 구슬픔은 작가가 느끼는 구슬픔과는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간난이의 입장에서 간난이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그 한계에 이르는 것이다. 류지보다 더 가까이 간난이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 모습은 류지의 존재와 똑같이 그 한계를 보이게 된다. “倭

---

으나 뒤로 가면서 류지와 매우 근접한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奴”를 “이놈 [イノム]”<sup>10)</sup>으로 잘못된 표기를 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에서도 조선어를 사용하는 간난이와 일치할 수 없는 작가의 한계<sup>11)</sup>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書き手)가 간난이와 류지의 어긋남과 간난이와 작가와 어긋남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 2.3 작가(書き手)의 의도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작품은 1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간의 흐름은 추모식이 아닌 작가(書き手)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선상의 시간으로 본다면 2장부터 시작해서 10장으로 이어지고 1장의 시간은 5장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작품은 선상의 시간의 흐름을 깨고 5장 다음에 와야 할 시간을 소설의 가장 앞인 1장에 둔 것이다. 그렇다면 1장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1장의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10장부터 고찰해 보도록 하자. 다음은 10장의 맨 마지막 장면이다. 수원 3.1만세운동 이후 간난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류지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찾으러 나서는 장면이다.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부근 일대는 그저 하얗고 하얀 눈으로 덮인 들판이었다. 술밭이 끝없이 이어져 있을 뿐 패

10) 이원희, 전개논문 p.217에서는 “倭奴 イノム”의 잘못된 표기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표기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다.

11) 권승혁, 전개논문 p.188에서는 류지와 작가의 한계를 이렇게 논하고 있다. “조선에 건너오기 전 친구와 작별의 정을 나누던 류지는 “조선 어린이들을 귀여워워하고 잘 따르게 하여 모두에게 칭송”받는 일본인으로서의 꿈을 밝힌 바 있다. 류지의 간난이에 대한 포용은 내선일체라는 국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일본인의 사명감과 함께 간난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하여진 일방적인 동정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류지에게 있어서 간난이는 온전한 내선일체운동 정착을 위한 동화대상자로서의 타자의식과 온정주의의 발로대상, 그리고 내지 일본을 정점으로 한 신일본건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이나 그 이상이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간난이의 등장 의미에 일정하게 제한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논문 제목처럼 내선일체 지향소설로 보고 있다.

인 곳도 없고 솟은 곳도 없다.

(중략)

(간난이를 죽인 사람은 틀림없이 군도를 휘두른 아저씨들이  
이 틀림없다)

눈은 더욱더 내리고 있었다. 간난이의 아름다운 시체를 영원  
히 묻어버리기라도 하듯이.

父親はあたりを見廻してゐたが、一面、ただ白い白い雪野原  
だつた。松林が際限なく続いてゐるだけで窪みも隆起もない

(中略)

(칸나니를 죽したのは、きつと軍刀をふり廻したをちさんた  
ちに違ひない)

雪はなほも降りつづいてゐた。カンナニの美しい屍体を、永  
遠に葬つてしまはうとするかのやうに。

작가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간난이의 아름다운 시체를 영원히 묻어버리기라도 하듯” 눈이 내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류지도 그의 아버지도 간난이를 찾지 못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어딘가에 살아 있을지 모를 간난이를 류지와 작가(書き手)는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수원은 눈으로 뒤덮여 간난이를 찾을 수 없는 광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류지와 그의 아버지는 간난이를 찾기 위해 성곽 밖으로 걷고 있으나, 작가(書き手)는 더 이상 이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간난이를 마지막까지 찾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를 접는 의도는 무엇일까? 마지막 장면의 수원이라는 무대는 하얀 눈으로 덮여 참혹했던 현장마저 하얗게 덮인다. 이 하얗고 하얀 눈으로 인해 참혹했던 광경은 모두 덮이고 “꽤인 곳도 없고 솟은 곳도 없”는 수원의 광경으로 묘사되면서 이러한 묘사로 인해 오히려 평등과 평화로움마저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의 시작인 1장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1장은 조선의 명절인 설의 민속적인 풍경에서 시작한다. 그 모습에는 식민지의 참혹함은 없다. 전통놀이인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의 모습이 정겹게 그려질 뿐이다. 그리고 간난

이와 류지의 풋풋한 이야기<sup>12)</sup>가 담겨 있다.

“있잖아, 류지”라고 말을 걸었다.  
 “50엔으로 사 줄래?”  
 “응, 크면.”  
 그랬더니, 친구인 언넌이는,  
 “류지는 일본인인걸,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 류지는 어  
 른이 되면 부자가 될 거야.  
 일본인이니까, 간난이는 행복한 부인이 되겠다. 간난이는 행  
 운아야.”

「ね、龍二、  
 と問いかけた。  
 「五十円で買ってくれる」  
 「ああ大きくなったら、  
 それで、友達のおンニョナーは、  
 「龍二は日本人だもの、お金がなくても結婚式できるよ。龍  
 二は大きくなったらお金持になるよ。日本人だから。カンナニは  
 幸せな奥さんになる。ね、カンナニは幸せ者よ、

1장에서는 식민지의 아픔도 수원의 참혹한 모습도 그려져 있지 않다. 그저 정겨운 조선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간난이와 류지의 풋풋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2장

12) 조정민, 전계논문 pp.149-150에서는 소설 『간난이』를 순애보의 전형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류지는 내선연애, 내선결혼 담론과 이데올로기 속에 함몰되어 있는 면을 노출시키고 있고, 나아가 식민자로서 피식민자에 대한 온정과 우호, 박애를 관철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고 있다. 류지를 아심적인 행동가, 사상의 변화를 체험한 모범적 식민자로 읽고, 또 간난이와의 연애를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사랑으로 읽음으로써 제국과 식민지의 화해를 서둘러 얻으려는 욕망이 이러한 균열들을 덮어버렸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심선언과 모범담안 찾기가 결국은 식민자와 피식민자, 혹은 제국과 식민지의 이항대립관계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만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재조 일본인의 경제적 위치와 그들 사이의 사상은 완전히 사장되고 만다”라고 논하고, 위의 일본어로 번역된 아리랑 가사의 “갈보로 팔려간다”와 1장의 간난이를 50원에 데려가겠다는 류지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자는 여기까지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달리 해석하고 있다.

부터는 다르다. 식민지 조선의 아픔이 조금씩 그려지고, 그 잔혹함은 3.1운동을 기점으로 처참하게 확대된다. 즉, 시간적 흐름으로 보아 5장과 6장에 사이에 들어가야 할 1장이 이야기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조선의 수원이라는 무대는 서로 다른 환경이며 동시에 둘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둘의 관계는 깊어지고, 수원 성곽 밖으로 가면서 둘의 관계는 큰 전환점을 갖게 된다. 즉, 만세운동은 수원 성곽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둘의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갈라지게 된다.

수원이라는 무대는 둘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장소이기도 하다. 즉, 수원이라는 소설의 무대는 처음부터 조선인 간난이와 일본인 류지를 갈라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무대인 것이다. 그리고 성곽 밖은 눈으로 덮여 하얀 바탕만을 남겨둠으로써 1장에서의 정겨운 수원의 풍경만이 부각되고 있다. 작가가 1장의 시간을 이야기의 시작에 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수원이라는 장소를 피의 참혹함으로 물들이고 싶지 않은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3. 맺음말

3인칭 화자인 龍二(류지)는 일본어이지만 조선의 ‘용이’이기도 하다. 그가 간난이를 통해 조선을 이해해가는 과정은 류지의 관점이 용이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미묘한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류지는 ‘용이’로서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작가(書き手) 역시 일본어와 조선어를 섞어 전개해 나가고 있으나, 앞에서의 조정민의 지적처럼 “혼종적 혹은 탈중심적 세계”의 구축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혼종적 혹은 탈중심적 세계”라는 공간을 조선의 수원에 두고 싶은 작가의 간절한 바람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소설이 시간의 흐름을 추모식으로 두지 않는 과거회상식의 방식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야

기하는 시점에서 자기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것이다. 재구성한다는 행위의 전제에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체험자의 자유가 있다. 경험을 취사선택하고 시간의 경험을 앞뒤 바꾸어가며 현재의 위치에서 최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과거회상 형식의 소설은 그 시간과 사실이 재편성되는 것인데, 재편성은 사실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부여를 하여 소설화한 이야기 형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형식의 필연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0장의 참혹한 현장인 수원을 하얀 눈으로 마치 하얀 스케치북처럼 덮어버린 데에는 1장에 나오는 수원의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작가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에게 1장의 조선 수원이라는 장소는 대단히 큰 의미다. 간난이와 류지가 이루지 못한 “혼종적 혹은 탈중심적 세계”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두고 싶은 염원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작가의 시간의 재편성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논자는 유아사의 『간난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의 교차문학 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일본 근대문학에서 ‘조선’은 재조명받아야 할 부분이다. 1920년대 일본유학과 지식인들은 일본어로 창작이 가능한 조선인 작가였다. 그들은 1930년대부터 하나둘씩 일본문단에 등장하여 일본어로 소설을 썼다. 하지만 이들의 작품은 현재 일본문학계에서도, 한국문학계에서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식민지 2세 작가, 즉 조선으로 이주하여 자라고 교육받은 유아사 가츠에(湯淺克衛)와 나카지마 아츠시(中島敦) 등이 조선을 배경으로 쓴 작품 또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외면받고 있다. 유아사의 『간난이』는 조선의 독립만세운동을 배경으로 삼은 만큼 뒷부분이 많이 삭제된 채 전해 내려온다. 일본 군인이 조선 양민을 살해하는 40여 쪽이 시대적 압박에 의해 잘려 나간 것이다. 문학작품은 작품 그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시공간적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 ‘교차문학’의 연구에 눈을 돌릴 때라고 본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에서는 문학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세상에 소개되지 못한 작품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논자는 이러한 문학을 발굴하고 연구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권승혁(2006) 「내선일체지향소설로 본 『간난이[カンナニ]』」『일본어문학』32집, 일본어문학회, p.188, 193.
- 김윤식(1974) 『한국근대작가론』 일지사, pp.4-500.
- \_\_\_\_\_ (1974)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pp.2-390.
- 이원희(2003) 「유아사 가즈에(湯浅克衛)와 조선」『일본학』22집, 동국대학교출판부, p.217, 231.
- 임종국(1966)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pp.4-25.
- 정인문(2004) 「한국 이주 일본인문학에 나타난 한국의식」『일본어문학』25집, 일본어문학회, pp.372-377.
- 조정민(2012) 「유아사 가쓰에 『간난이』의 정치적 알레고리 읽기」『한일민족문제연구』22호, 한일민족문제학회, pp.149-154.
- 池田浩士(1995) 『カンナニ-湯浅克衛植民地小説集』インパクト出版会、p.520.
- 鎌田沢一郎(1933) 『朝鮮は起ち上る』千倉書房、pp.70-200.
- 柄谷行人(1994) 『<戦前>の思考』文芸春秋、pp.1-272.
- 黒川創編(1996) 『朝鮮』新宿書房、pp.1-250.
- 白川豊(1995) 『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日本』大学教育出版、pp.1-226.
- 白川豊編(2000) 『朝鮮国民文学集』ゆまに書房、pp.1-360.
- 田中英光(1965) 「朝鮮の作家」『田中英光全集2』芳賀書店、pp.389-394.
- 日本社会文学会編(1993) 『植民地と文学』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pp.4-270.
- 朴春日(1985) 『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像』未来社、pp.121-122.

성 명(한 글) : 어 연 경

(한 자) : 魚 縑 京

(영 문) : Aeo, Yeon-Kyung

논문영어제목 : A Study of Cross Literature in Japanese Colonial Era  
- A Study on Cross Literature through Kannani Written  
by Yuasa Katsue -

소 속 : 국민대학교 일본학 강사

E-mail : aeoy0616@hanmail.net

투 고 일 : 2014 년 3월 31일

심 사 일 : 2014 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4 년 4월 29일